



팡가시난팀 9월 보고서

PangGoo:D

강경구

백지연

정구인

정영제

PangGoo:D (빵굿) : 'Pangasinan is good'

경구 Pedro

팀에서 해맑음을
말고 있는 Pedro.
현지인 포는 대만,
중국, 일본인 등으
로 오해받는
visual. 먹기와 기
타를 사랑함!

지연 Charito

YMCA에 수많은
적을 두고 있다.
못 먹는 것이 없
는 걱정쟁이.
Are you Daisy?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다.



구인 Mutya

난 bread 중독자
로 늘 반딧살을 먹
지. 가끔 바나나
걸이라고 불리기
도 해! 또한 하루
에 한번씩은 찍는
셀카 때문에 셀피
퀸이라고도 불려.

영제 Lorenzo

"Lorenzo, are
you sleepy?" 나
안졸려! 제발 졸
리냐고 물어보지
좀 마! 원래 이렇
게 생겼어!

활동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마닐라도착 인트라무로스투어	Kuya텍스 OT kuya 팝스 OT	평가시난도착 아카데미올림픽방문 패밀리데이방문 시니어클럽방문 웰컴파티
7	8	9	10	11	12	13
CSILucaomall투어 아띠하우스입성	Lingayen투어 말루집 방문 바이블쉐어링	휴식 시장투어	평가시난Y-OT (말빈,kuya지미)	수영	활동계획토의 Y-Board's Meeting	Academic Olympics보조
14	15	16	17	18	19	20
CSImall투어	규칙정하기 태풍으로인한휴식	한국음식데이	홍수방문 kuya지미 아띠하우 스 방문	End Poverty토의 영어클래스 수영	줌바클래스 영화 태풍	휴식 영화
21	22	23	24	25	26	27
로빈슨몰투어 EndPoverty토의 with 코디네이터	UL방문 덤프사이트첫방문 nepo몰방문 Endpoverty 1차 계획 서 작성	줌바클래스 푸가로첫방문 따갈로그수업	대청소 첫방문느낌나누기 따갈로그수업	줌바클래스 영어클래스	프리스쿨수영보조 UL농구경기관람 영화	UL치어리딩대회관람 y친구들 아띠하우스 방문
28	29	30				
휴식 ENDPOVERTY 2차 계 획서 작성	덤프사이트 방문	푸가로방문 바이블쉐어링				

목차

1. Bye Korea, Hi Philippines
2. 지역/기관 소개
3. 주요활동
4. 기타활동
5. 아피들의 생활
6. 개인에세이



BYE KOREA, HI PHILIPPINES



1. Bye Korea, Hi Philippines



마닐라에서의 이틀

1. 아페 마셀, 꾸야 팝스와의 만남

2. 인트라무로스

3. 오리엔테이션 (with 꾸야 텍스, 꾸야 팝스)

꾸야텍스 : 앞으로 5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국제자원활동을 하며 가져야 할 마음
가짐과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다.

꾸야 팝스 : YMCA와 필리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다.

Bye Korea, Hi Philippines

출국 전 소감

경구(Pedro)

아띠들과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고 손을 흔들며 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그때 당시 나의 머리 속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까?와 같은 수 많은 의문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 보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컸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그 곳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드디어 출발 선상에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그렇게 기대와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필리핀으로 향했다~

지연(Charito)

9월 4일 새벽 4시 40분, 다 함께 버스에 오를 때 느꼈던 쌀쌀한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다. 공항으로 떠나는 캄캄한 버스 안에서 막연한 걱정과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로 출국을 하게 돼서 숨을 돌릴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배웅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였는지 배낭을 챙기지 않고 출국장에 들어갈 뻔 하기도 했고, 핸드폰을 깜빡하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반납하며 첫날부터 이런저런 실수에 웃음이 나기도 했다. 출국장을 통과하고 우리 필리핀팀 네 명만이 남았을 때 나는 비로서 처음으로 우리가 라온아띠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필리핀으로 떠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Bye Korea, Hi Philippines

출국 전 소감

영제 (Lorenzo)

정말 태어나서 손에 꼽을 정도로 떨렸던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떨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국 전 날에는 한 숨도 자지 못했고 공항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심장이 너무 크게 쿵쿵거리 웃기도 힘들었다. 아직 출국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나를 누군가가 안아주며 마지막으로 건넨 한마디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와라'. 고민이라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

구인 (Mutya)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난 아직까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늘 그게 내 고민 중 하나였다. 그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꽂혀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6개월 전 필리핀으로 2주간 단기봉사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나는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맛보았다. 나에게 있어서 2주간의 시간은 정말 한여름 밤의 꿈과 같았다. 그곳에서 내가 느꼈던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든 그 행복, 그 곳에서의 내 열정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좀 더 긴 기간 동안 국제활동을 할 수 있는 라온아피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똑같은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에서 나 자신에 대해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었다. 앞으로 나는 필리핀에서 5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다!





팡가시난 Pangasinan

팡가시난은 필리핀의 주로써 44개의 municipalities와 4개의 cities 그리고 1364개의 바랑가이로 나누어진다. 루손 섬의 서쪽에 위치해있으며 전체 땅의 크기는 5451.01 제곱 킬로미터이다.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수는 2,779,862명이다. 주도는 링가이엔(Lingayen)이며 공식 언어는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언어 중 하나인 팡가시난쎄이다. 또한 필리핀의 국교는 천주교이며 팡가시난 또한 천주교가 대부분이다.

Pangasinan의 pang은 for, asin은 salt 그리고 an은 location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Place of salt' 혹은 'place of salt-making'으로 소금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이름의 의미처럼 루손의 주요 생선 공급지이며 필리핀의 주요 소금 생산지이다. 팡가시난의 주요 생산물로는 'bagoong(소금에 절인 생선)'과 'agamang(소금에 절인 새우)'가 있다.



관광지로는 hundred islands national park와 white-sand beaches가 유명하다.



다구판 Barangay Dagupan

다구판 시티는 팡가시난에 속한 독립적인 시티로 루존섬의 lingayen gulf에 위치해 있다. 2010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다구판 시티의 인구는 163,676 명이다. 땅의 사용은 35.98%가 농업으로, fishpond, cropland, residential이 22.88% 그리고 그 외는 상업적, 공업적, 사회적, 공공적으로 이용된다.



다구판시티는 31개의 바랑가이 (Brgy)로 이루어져있으며 팡가시난Y는 바랑가이 TAPUAC에, 아띠하우스는 바랑가이 POGO CHICO에 있다. 우리가 활동할 Pugaro역시 31개의 바랑가이 중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한 바로는 필리핀의 팡가시난은 경기도, 다구판은 안양시, 바랑가이 푸가로는 관양동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구판은 팡가시난에서 방구스(milk fish)의 최고 생산지이며 4월에 한 달 동안 열리는 방구스 페스티벌이 굉장히 유명하다. 우리 기수는 하반기에 오게 되어 방구스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매우 Sayang!(아쉽다!)

팡가시난 YMCA

팡가시난 YMCA는 1926년 설립되었다. 현재 꾸야지미, 마미줄리, 마빈, 에머 이상 4명의 staff과 volunteer와 scholar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Board)를 통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팡가시난 YMCA의 멤버는 청소년 그룹인 SKY, 장학생들의 모임인 CYSO, 어린이를 위한 RTC,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HI-Y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COLLEGE-Y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프리스쿨, 시니어클럽, 줌바클래스 등을 통해 지역의 전 연령대와도 만나고 있다.



팡가시난 팀의 새로운 멤버를 소개합니다



말루(Marlow) 22살
아피하우스의 요리 담당
“I am pangit(못생겼어)!”
그치만 원빈을 닮았다



레이디린(Ladylyn) 19살
회계담당
팀의 막내지만
가끔은 언니같은!



롤리(Rolly) 20살
코디네이터 리더
“아니아~하지마~”
귀여움 담당

팡가시난 YMCA의 Volunteer 말루, 레이디린 그리고 롤리는 이번 라온아띠 12기 팡가시난팀의 코디네이터로 모든 생활을 함께하는 제 5의 라온아띠 멤버들이다. 이제는 없으면 허전한 3인방.

팡가시난 YMCA 식구들



Kuya Jimmy
General Secretary

팡Y 사무총장
간식을 나눠주는 인자한
삼촌, 간지럼 태우기를
좋아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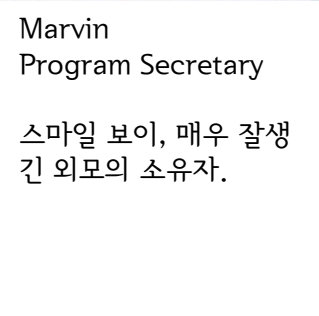
Mommy Julie
Finance Officer

팡y의 mommy,
그녀의 샌드위치는 우리
를 반응하게 한다!



Emerson
Program Coordinator
& Membership Clerk

이 시대의 차도남,
내 인사 좀 받아줘!



Marvin
Program Secretary

스마일 보이, 매우 잘생
긴 외모의 소유자.



Alen
Program Volunteer

10월이 다 되어서 나타
난 당신! 긴장했다. 생
각보다 훨~씬 따뜻하
다.



Bobby
Hotel Supervisor

아직 정보가 없는 의문
의 노총각,
드디어 12월에 탈출한
다!



Kym
Volunteer

Y의 분위기 메이커, 나
타나는 순간 시골벽쩍
해진다! 그렇지만 때론
진지한 남자.



Reynard
Cook Volunteer
& Scholar

근육돼지, 엄청난 요리
실력의 소유자, 형제가
우월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음! 매력 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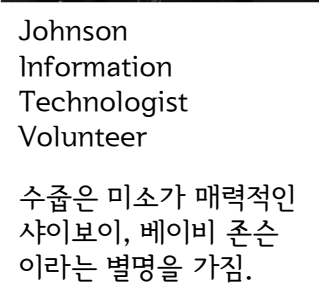
Jake
Cook Volunteer,

Reynard의 동생,
나쁜 남자의 매력이 물
씬 풍김, 가끔 한번씩 췌
겨줄 때의 감동이란!



Jeramae
Scholar Vice
President

어느 YMCA 왔니? 스리
랑카! 조크랑! 퓨어 필
리피나~
쿨~한 미소 :)



Johnson
Information
Technologist
Volunteer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샤이보이, 베이비 존슨
이라는 별명을 가짐.



Jeremy
Maintainance
Volunteer

피부색 때문에 그의 별
명은 초~코,
짜식 귀티나게 생겼어!





주요활동

덤프사이트 Dumpsite

(1) 덤프사이트 소개 / 현황

덤프사이트는 다구판의 유명한 관광지인 Bonuan blue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한 쓰레기장이다. 빈 공터였던 곳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다구판의 다른 바랑가이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이 곳을 덤프사이트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다구판 시티 내의 모든 쓰레기가 덤프사이트에 버려진다.

덤프사이트가 만들어진 후 집을 살 여유가 없는 가족들이 덤프사이트에 스스로 들어 오기 시작했고 그곳의 주민들은 쓰레기를 분리하여 Junk Shop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블루하우스라는 조그만 비료공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중 일부는 덤프사이트 주민이다.

현재 덤프사이트에의 쓰레기양은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늘어나 10기, 11기 때와는 달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작은 공간도 찾기 힘들며 7월 말의 큰 태풍으로 아띠클라쎄가 열렸던 오두막 또한 부서진 상태이다.



덤프사이트 Dumpsite

(2) 덤프사이트 정부 계획

계속해서 덤프사이트의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고 홍수가 나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나는 등, 덤프사이트의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이주를 계획하였고 이번 해 말 안에 덤프사이트의 주민들을 모두 주변 마을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무료로 집을 제공, 또한 그들의 생계를 위한 단기적인 직업을 추천/제공할 예정이다.

(3) 덤프사이트 주민들

10기 때의 조사에 의하면 31가구가 덤프사이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한다. 덤프사이트는 블루하우스를 경계로 왼쪽마을과 오른쪽마을로 나뉘어지는데 왼쪽마을은 바다와 마을이 마주하고 있는 한편 오른쪽 마을은 좀더 열악하다. 그곳의 거의 모든 주민들은 덤프사이트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부모를 도와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4살 어린아이 또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아이들 중에는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덤프사이트 Dumpsite

(4) 앞으로의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 1주일에 2번, 9시부터 11시까지 방문할 계획이다. 이 전 기수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두었지만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House to house

우리기수는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5~6가구씩 집집마다 방문하기로 했다. 실제로 방문한 결과 주민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지만 집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House to house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곧 있을 이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을 조사할 예정이다.

덤프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오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방문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덤프사이트 Dumpsite

아띠클라쎌

아띠클라쎌에선 사정상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한다. 10기는 블루하우스에서, 11기는 오두막에서 아띠클라쎌를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활동할 공간을 아직 찾지 못했다.

주요프로그램 : 10기는 아이들과의 몸놀이를 통한 관계형성, 11기는 영어교육과 예체능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2기는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상처치료와 위생교육 : 우리는 상처치료와 위생교육을 아띠클라쎌 프로그램 시작 전 간단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10기, 11기에 비해 아이들의 상처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 계속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덤프사이트 첫인상

경구(Pedro)

처음 덤프사이트를 방문 했을 때 덤프 사이트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여기지 않고 낯선 이방인처럼 쌀쌀하게 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 했었다. 아이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봐 내심 마음 졸였다. 그러나 막상 방문해 보니 환하게 웃으면서 몇몇 아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좋았다. 첫 방문 때, 이 곳의 사람들은 거의 따갈로그어로만 사용하여 이 때 가장 절실하게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 먹었니? 재밌니? 와 같은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을 때라 따갈로그로 자기소개 후 멧쩍은 웃음만 짓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도 많이 부족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처음 갔을 때 보다 몇 마디라도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겁다. 몇 번 가지 않았는데 덤프 사이트를 가는 것이 익숙해졌다. 덤프 사이트를 가는 날이면 아이들은 만날 생각에 즐겁다. 아이들과 노느라 어르신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 곳의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더 친밀해 지고 싶다~

영제 (Lorenzo)

태어나서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 졌지만 처음 방문한 그 날의 충격은 잊을 수 없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악취. 내가 본 사람이 만들어낸 최악의 장소였다. '아무리 생계가 중요하다지만 그 곳에 들어가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서 활동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덤프사이트 첫인상

지연(Charito)

사실 덤프사이트에 가기 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다. 최근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비도 많이 와서 평소보다 악취가 더 심하고 환경도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덤프사이트에 도착했을 땐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탓인지 냄새가 나는지도 몰랐고 그 곳에서 나왔을 때쯤은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곳에서 느낀 것은 결국 덤프사이트도 ‘사람 사는 곳’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한국에서 지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웃는 미소를 보았다. 처음 본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나를 꼭 안아주는 아이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웃으며 나를 반겨주는 아주머니를 보며 앞으로 내가 이들과 쌓아갈 관계가 기대되는 한편 이들이 나를 반겨주는 만큼 나도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지 조금 걱정되었다

구인(Mutya)

처음 덤프사이트를 방문하던 날,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줄까?’라는 걱정을 했다.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다.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던 아이들,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시던 어른들,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난 아직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들을 알아가고 싶다.



푸가로 Barangay Pugaro

(1) 푸가로 소개

푸가로는 다구판 시티의 바깥쪽에 위치한 섬으로 FISH MARKET의 항구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푸가로는 다구판 시티의 바랑가이 중 하나이며 푸가로는 그 안에서 다시 작은 3개의 바랑가이로 나뉘어진다.)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푸가로는 다구판 시티의 바랑가이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으며 푸가로 안에는 하나의 통합 초등-고등학교가 있다. 푸가로 주민들의 주 수입원은 어업이다. 푸가로 안에는 미니마트라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작은 구멍가게만 있기 때문에 큰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섬 밖으로 나와야 한다.



푸가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물의 오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설사병을 앓는 등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했지만 2011년 팡가시안 YMCA와 푸가로가 함께 WATER PURIFYING SYSTEM을 지어 현재는 5페소만 지불하면 주민들은 정화된 물을 살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푸가로의 바닷가나 마을의 범죄도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이전과 달리 많이 안전해졌다고 한다.

푸가로 Barangay Pugaro

(2) 앞으로의 계획

화요일과 토요일, 1주일에 2번 9시부터 11시까지 방문할 계획이다. 덤프사이트와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데이케어센터 보조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

화요일: 2명 데이케어센터 보조
2명 커뮤니티 프로젝트 진행
토요일: 2명 개인 프로그램 진행
2명 커뮤니티 프로젝트 진행



푸가로 Barangay Pugaro

Community project

2-3주간 house to house를 통해 푸가로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푸가리에 필요한 것을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제안되었던 프로젝트로는 'Green house', 'Clean up surrounding Pugaro', 'Tree planting'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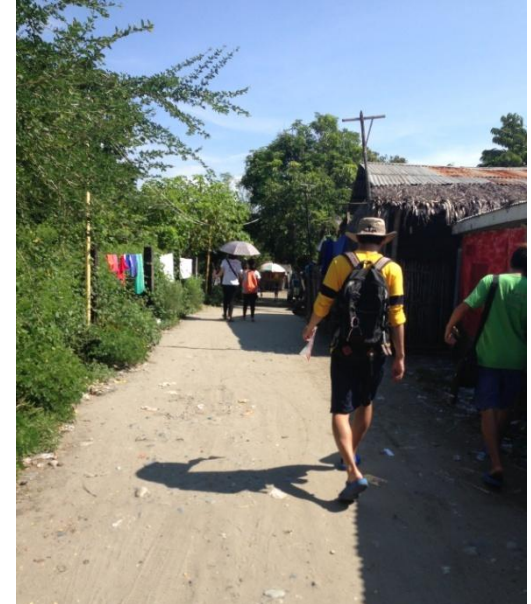
현재 YMCA 에서는 Green house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10월에 진행될 house to house 활동 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지 라온아피와 팡가시안 YMCA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데이케어센터 보조

데이케어센터는 푸가리의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한국의 유치원과 같은 개념이다.

그 곳에 있는 선생님을 도와 수업보조 활동을 할 예정이다.

2번째 방문했을 당시 수업시간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라온아피를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다.



푸가로 첫인상

경구(Pedro)

덤프사이트 방문 후 다음날 푸가로를 가게 되어 푸가로의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왠지 모르게 덤프 사이트의 사람들이 생각났다. 덤프사이트와는 다르게 규모도 나름 크고 시설도 좋게 느껴졌다. 간혹 지나가다가 안녕~ 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신기했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을 흔들며 지나갔을 뿐인데, 어느 샌가 뒤돌아보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서 놀랐다.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드는데 같이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주어서 좋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마을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부담되기도 했다. 푸가로의 경우 섬마을이어서 왠지 모르게 동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을 받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그들만의 또 다른 세상이라랄까? 묘한 느낌을 간직한 채 집으로 향했다.

영제(Lorenzo)

‘우리가 정말 푸가로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덤프사이트는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 할 수 없을 정도로 표면적으로 문제가 많이 들어났다. 하지만 푸가로는 내가 사는 바랑가이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무슨 이유에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드러나지 않은 무엇이 있을까? 이빨도 곁에 썩은 것보다 속이 썩은 게 더 심각하고 치료하기도 힘들다는데...

푸가로 첫인상

지연(Charito)

사실 나는 아직 우리가 왜 푸가로에 가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처음 푸가로에 방문했을 때의 첫인상은 한적한 시골마을 같았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우리가 방문한 데이케어 센터의 아이들,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모두 웃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푸가로는 마치 필리핀이 아닌 또 다른 나라 같았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푸가로에 가는 이유가 우리 라온아띠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단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푸가로 활동에 임하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구인(Mutya)

푸가로는 뭔가 다른 세상 같다. 한 달 동안 내가 봐온 필리핀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 맨 처음 덤프사이트를 방문하고 푸가로를 갔을 때는 사실 좀 기분이 이상했다.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예쁜 유니폼을 입고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보니 덤프사이트 아이들이 생각났다. 누구는 예쁜 유니폼을 입고 day care center에서 수업을 듣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일을 해야 한다는게 참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End poverty

캠페인을 기획하며

캠페인을 기획하며 서로에 대한 poverty의 개념이 달라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기획 초기에는 팀원 모두 Poverty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Poverty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하며 캠페인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빵굿팀끼리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한 후, 코디들과 함께 현지 상황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가 생각하는 Poverty를 들어 보고 최대한 다양한 Poverty의 개념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보고서에 다루려고 한다.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요활동 — End Poverty

우리가 생각하는 End poverty

경구(Pedro)

Poverty의 개념은 매우 다양해서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개념까지도 함께 수반한다. 물질적 빈곤, 기회의 빈곤, 교육의 빈곤 등 수 많은 종류의 빈곤들이 존재하지만 나에게 있어 Poverty는 ‘사고의 빈곤’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물컵에 똑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이 컵에 물이 이 만큼이나 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경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후자와 같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Poverty이다. 부정적인 사고는 마음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곧 End Poverty가 아닐까?

영제(Lorenzo)

이제까지 나는 가난은 돈의 문제 인줄로만 알았다. 라온아띠 국내훈련을 통해서 가난의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별, 가정, 사랑, 기회, 교육 등 갖가지 것들의 부족이 모두 가난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돈이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난의 가장 큰 적은 역시나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돈이 있는 사람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은 받아야 그 위에 성별, 가정, 사랑, 기회, 교육 등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주요활동 — End Poverty

우리가 생각하는 End poverty

지연(Charito)

국내훈련에서 Poverty를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배웠었지만 여전히 나는 poverty는 돈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1차적으로 poverty는 돈이 없어 매 끼를 챙겨먹지 못해 굶어 죽고 저렴한 약조차 사먹을 수 없어 죽는 것이다. 물론 기회의 부족을 poverty로 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대학을 갈 수 없다면 결국은 돈이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구인(Mutya)

나에게 있어서 POVERTY는 기회의 빈곤이다. 가끔은 누리지 못하는 것, 가끔은 할 수 없는 것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난 빈곤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빈곤이 조금씩 다를 뿐.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POVERTY는 돈이 없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끔은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들이 있기 때문이다.

END POVERTY를 준비하면서 필리핀에는 길에 거의 쓰레기통이 없는 것, 비닐봉지 사용량이 많은 것... 다양한 문제점들을 얘기했다. 그 과정에서 난 문득 '이곳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괜히 END POVERTY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아닐까? 우리가 뭘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END POVERTY가 참 조심스럽게 느껴진다.

Shapes Colors



기타 활동

Y-ACTIVITY

(1) ENGLISH CLASS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의 사정에 맞게 오직 우리 아띠들을 위해서 팡가시안 YMCA가 열어준 클래스. 필리핀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영어를 할 수 있다. 따갈로그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빛. 그렇지만 영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기에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바기오에서 10년동안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마미줄리가 우리를 가르쳐준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가르쳐줘서 적잖히 당황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업부터 영어일기와 POVERTY에 대한 생각도 쓰며 레벨이 급 높아져 또 한 번 당황했다. 수업은 매주 목금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며 필리핀타임이 적용되어 거의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된다.



Y-ACTIVITY

(2) TAGALOG CLASS

Y Pre school 교사인 melvin이 우리의 따갈로그어 선생님이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멜빈은 따갈로그어 수업에 많은 열정을 보인다. 항상 열심히 준비해오는 멜빈 덕분에 우리의 따갈로그어 실력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중이다.

수업할 때 멜빈의 표정이 참 좋은데, 이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아띠클라쎄를 진행할 때 어떤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아이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올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또한 멜빈은 우리가 당일에 배운 수업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다음시간에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말하도록 하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복습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돼서 그의 수업 방식이 좋다.



Y-ACTIVITY

(3) BIBLE SHARING

매주 월요일 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읽고 그 구절과 관련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YMCA의 대다수의 Staff들과 Volunteer들이 참여하며, 재정담당 마미 줄리의 주도하에 한 사람씩 차례 차례 각자의 이야기를 영어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듯 큰 격식 없이 편안하게 진행된다.

개개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좋았지만 반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 사람에게 순번이 돌아가 들은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없어 아쉬웠다. 또 중간 중간 영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Volunteer들이 따갈로그어로 말할 때가 종종 있는데 후에 번역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모두 습득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 주제와 관련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Y-ACTIVITY

(4) 프리스쿨 수영보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 금요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처음에 수영수업보조라고 해서 전문지식이 없어 걱정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인간투브다. 아동풀이 없는 이곳 사정상 우리는 아이들이 빠지지 않게 붙잡고 있어주면 된다. 3시간의 수업시간으로 인해 팔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고 우리도 수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Y-ACTIVITY

(5) 줌바 클래스

매주 화 목 오전 9~10시에 진행되는 춤 교실로 각종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이다. Melvin이 지도하기는 하지만 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무 동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춘다. 초반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몇 번 참여 하였지만 덤프사이트와 푸가로 활동으로 인해 최근에는 참가 할 수 없게 되었다. 음악에 맞춰 격정적으로 몸을 흔들다 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운동도 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정이 겹쳐서 아쉬울 따름이다.



VISITING

(1) UNIVERSITY OF LUZON

1948년 개교하여 현재 아띠하우스 근처에 있는 메인캠퍼스와 POZORRUBIO에 캠퍼스를 두고있다. 두 분의 YMCA회원이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라미를 비롯한 몇 명의 YMCA Scholar가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다. Liberal Arts, Commerce and Education Programs과 루존에서 유일한 E-Learning 시설로 인해 인지도가 높다. kuya내시(Y이사, UL교수)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No1포즈를 취하는 걸로 보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꽤나 높아 보인다. 현재 미국, 중국, 한국, 수단 그리고 예만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다니고 있다.

UL 축제 우리나라 여느 대학 축제처럼 1주일 동안 농구, 배구, 체스, 치어리딩 등의 Intramurals (sports competition)이 열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즐긴다. 또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머핀과 다양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Visiting

(2) Academic Olympics

학생들을 대상으로 YMCA에서 주최하는 주요한 연례행사이다. YMCA의 설립정신(마인드, 바디, 스피릿)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inging, Dancing, Quizbee, Extemporaneous Speaking, Poem Recital, Oration 등의 competition을 연다. 아카데미올림픽의 참가자들은 모두 YMCA의 회원이며 학교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다. 30페소의 참가비를 내야하며 YMCA는 기업의 후원없이 순수하게 참가비를 가지고 대회를 운영한다. 이번 우리가 참여했던 아카데미올림픽은 팡가시난 전체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였다. 여기서 입상한 학생들은 Northern Luzon대회를 거쳐 Philippine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아미들의 생활



Mall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지역에도 많은 현대식 Mall이 있었다. 우리가 다녀본 다구판 내외의 Mall만해도 CSI Lucao, CSI Dagupan, Robinson's Mall 그리고 Nepo Mall 4곳이었다. 더운 날씨와 반대로 Mall안은 추울정도로 냉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특히 Robinson's Mall에는 화장실에 그 귀한 휴지도 비치되어있었다.



일반 마켓(시장)에 비해 비싼편이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Mall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입구에서 경비원이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과 모든 Mall의 중심부가 뱅뚫려 있다는 것이다. 중앙난간에 달라붙어 Mall을 한 눈에 내려다 보는 것도 하나의 구경거리이다.

음식



우리 4명 다 필리핀에 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음식이 얼마나 짜고, 달고, 자극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적응할 수 없는 짠맛에 처음에는 놀랐다.

이렇게 짜게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Saltless day를 만들어 싱겁게 먹는 날을 가져보려고 장난스러운 대화를 하기도 했다.

한국과 다른 필리핀의 음식 문화 중 한가지는 반찬 수이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을 조금씩 해서 밥을 먹는 데에 반해 필리핀에서는 반찬 한, 두 개와 밥을 먹는다. 이제는 식탁에 반찬이 3개 이상 올라오면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하며 다들 놀라곤 한다.



9월 한 달 동안은 코디네이터들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같이 masarap!(맛있다)을 연신 외쳤다. 다른 나라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다. 오히려 너무 맛있게 먹어서 큰일이다.(점점 오르는 우리의 살들..) 아직까지는 코디네이터들이 주로 요리를 해준다. 우리는 옆에서 같이 돕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마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 같다. 한 달 동안 매끼 다른 음식을 해주는 코디네이터들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필리핀 코디네이터들이 한국에 온다면 이렇게 매끼 다른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필리핀은 하루에 몇 번 씩 간식을 먹는다. 아침, 간식, 점심, 간식, 간식, 저녁, 간식..이렇게 먹는 것을 즐기는 것도 필리핀 음식 문화 중 한가지이다.





시장의 친구

우리 라온아띠 팀의 양식을 책임지는 Malimngas 마켓! 매 번 식사 시간만 되면 도보로 약 10~15분 거리에 위치한 이 시장으로 향한다. 시장 주변에 소 규모의 Mall, 졸리비, 스타벅스, 여러 상점 등이 존재하여 먹거리 이외에 필요한 간단한 생필품 또한 구매 할 수 있다. 시장의 경우 질 좋은 야채, 과일, 생선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장 근처 일종의 포장마차와 같은 곳에서 닭, 돼지 고기 꼬지 등 각종 간식거리를 먹는 것도 일종의 별미였다. 푸가로로 들어갈 때 이 시장 근처의 선착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태풍 & 홍수

필리핀에는 1년에 약 20번 정도의 태풍이 지나가며 태풍의 이름은 알파벳 ABC의 순서대로 이름 붙여 진다고 한다. 7월부터 9월이 필리핀의 Rainy season(우기)이며 이 때 대부분의 태풍이 지나간다고 한다.

우리 뱅긱팀도 팡가시난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핀의 태풍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는 한국의 태풍과 크게 다르지 않아 걱정하지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였다. 태풍 때문에 덤프사이트와 푸가로의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고 태풍이 지나가고 드디어 사이트를 방문할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띠하우스의 문을 열고 우리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종아리가 거의 잠길 정도의 물이 차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다구판은 팡가시난 내에서 지대가 가장 낮아 다른 지역의 빗물이 모두 다구판으로 유입되면서 태풍 후에는 이렇게 종종 홍수가 난다고 한다. 깜짝 놀란 4명의 아띠들에 비해 우리의 코디네이터들은 너무나도 덤덤했다. 이런 홍수가 약 1주일 정도 지속되면서 우리 아띠들의 스케줄은 모두 취소되었고 우리는 마치 탈출할 수 없는 아띠 감옥에서 강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다. 덤프사이트는 비가 오면 악취가 심해 들어갈 수 없으며 푸가로는 물살이 세져 배가 뜰 수 없어 결국 우리는 9월의 끝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의 활동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개인에너지





강경구 Pedro

<첫 발자국>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온지도 벌써 한달 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한달 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출국 전 열정에 가득한 마음은 조금 식어 들고 더위와 여유로운 일정에 길들여져 나태해 지지는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해 본다. 사실 이제 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순간 순간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마냥 즐겁지 많은 않았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는 새롭고 신선했지만,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묻고 나면 언어의 장벽에 침묵이 흐르곤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다 표현 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영어를 사용하지 못해 따라갈조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원래는 말도 많고 먼저 다가가는 편인데,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몇 마디만 해도 피곤해져 조용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월 초 나눔에서 팀원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다지 공감 되지 않았다. 한 때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싫기도 했다. 말 하는 것이 힘든데 24 시간 코디들이 함께 생활하고 잠도 같이 자니 더욱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 곳의 삶에 익숙해지자 대화하는 것이 점차 편해졌다. 아직까지도 언어 때문에 표현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배운 약간의 따갈로그어가 들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본적인 말을 현지어로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편안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장난치는 경우도 전보다 많아졌고, 조금 씩이나마 말도 더 하게 되었다. 지금 내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Roly와 Marlou를 보고 있으니 괜히 피식 웃음이 나온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고, 잊고 있던 영어의 감도 사알~짝 씩 살아 나는 것 같아서 재밌다.

언어 이외에는 이곳의 음식도 입맛에 맞고 집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편안하다. 한국에 비해 짜고, 시고, 달지만 맛 자체는 한국의 음식과 비슷한 음식들도 많고 맛있었다. 하도 먹어서, 팡가시난 Y식구들은 음식이 있으면 Pedron~ Pedron~ Guttom?(배드로~ 배드로~ 배고파?) 이라며 지금까지도 먹기를 권유 한다. 언젠가 Reyneld가 상반신 전부 다 위로가득 차 있는 것 같이라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때가 기억난다. 배불러서 안먹는다고 하니 어디 아프냐며 Lyn이 진지하게 묻기도 했다 ㅋ ㅋ 그러나 보니 살이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해서 좋다! 날씨 또한 초반에는 우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비도 자주 와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기가 끝나고 초반보다는 날씨가 Hot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의 대구 보다 바람이 시원해서 오히려 더 나았다. 물론 덥긴 하다. 지금도 덥다.. ㅠ ㅠ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11기의 보고서를 보면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 하루 끊긴 것을 제외 하면 물이 잘나와 씻고 설거지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행복하다~ 아! 예상 했던 것 보다 벌레가 많아서 당황스러웠다. 모기향을 피우고 모기를 잡아도 잡아도 어느 샌가 이 놈의 모기는 내 피를 빨아 간다 ... 바퀴벌레, 방아깨비, 도마뱀 등의 손님이 집을 자주 방문 하시고 방안에 개미굴이 있어 개미들과 함께 살아간다. 다행히 벌레를 심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번 씩 큰 아이들?만 처치 하고 나면 벌레 몇 마리 보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한다. 청소도 매일 매일하고 대청소도 자주 하는 편인데도 왜 벌레가 안 줄어들까.. 옆집의 개는 밤마다 어찌나 짖어 대는지.. 근처 술집의 노래 소리는 그칠 생각을 않지만 그걸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 심하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다 ㅋㅋ

노래 소리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이곳의 사람들은 노래와 춤이 일상이라고 여겨졌다. 다들 춤을 어찌나 잘 추는지... 몸치인 나의 허우적거림과 너무나 비교 되었다. 5개월 뒤면 나도 나아지겠지? 아니.. 나아 져야만 해 ... T T 노래 또한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귀호강을 했다. Academic olympic에 참여 했을 때 , 노래 오디션을 구경했는데.. 와... 한명 한명.. 못하는 애들이 없었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술집마다 노래방 기계들이 있고 팡가시난Y에서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는다. 아띠하우스에서도 Roly가 음악을 자주 틀어놓고, 어쩌다보니 기타 한 대가 아띠 하우스에 24시간 있게 되어 Marlou가 기타 치면서 노래도 자주 부른다. Marlou와 영제형과 함께 기타를 번갈아가면서 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즐겁다. 음악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서 더 기운이 난다!

한편으론 홍수, 태풍 등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아쉬웠다. 불가항력으로 덤프사이트, 푸가로를 방문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야할 일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않았다. 방문 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효화가 되고, 일정이 미루어 지다 보니 원래 하기로 했던 계획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방문 하지도 않고 계획을 짤 다는 것에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팀원들과 코디들과 함께 소통하며 고민했기에 방문 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렵풋하게나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소통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 밖에 '쉼'의 시간이 무척 많았는데 한달 동안 '쉼'의 시간을 지나치게 '잠'에 투자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쉼'의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9월에 세이클 마칠까 한다. 앞으로 남은 4개월 7개 국가의 모든 아띠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



백지연 Charito

쓰레기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전부 덤프사이트로 간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모인 덤프사이트에 활동을 하러 간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이곳 필리핀에서는 비닐봉지 사용량이 엄청나다. 마트에 가면 손바닥만한 비닐봉지부터 다양한 사이즈가 준비되어있으며 무언가를 담을 때도 두 장을 겹쳐 담아주기도 한다. 또한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덤프사이트에 가면 비닐봉지들이 넘쳐나며 모든 쓰레기들이 한데 모아져서 사람들이 저마다 비닐봉지를 뜯어 쓰레기를 분리해낸다. 그 높은 쓰레기 산에 내가 버린 쓰레기도 함께 있을 생각을 할 때면 나 또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쓰레기가 덤프사이트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쓰레기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사람

라운아띠가 되고 첫 국내훈련을 위해 떠나던 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내가 그토록 바라던 라운아띠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냥 들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국 전 캠프를 떠나는 내 마음은 두려움이 더 컸다. 만난 지 2달 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과 앞으로 5개월을 지내야 하며 언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어깨가 무거웠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 한국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든데 타지에서 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기대가 더 컸던 것 같다. 앞으로 내게 펼쳐질 모든 것들, 사람, 음식, 풍경, 언어.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나는 정말 필리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셔서 먹을 수 없던 시니강도, 15분 걸리는 시장을 매일같이 걸어가는 것도. 필리핀은 서로에게 장난치는 것이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짓궂은 필리핀 친구들의 장난에 처음에는 당황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팀원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전에 현지 코디네이터 친구와 제일 먼저 트러블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장난을 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 그렇지만 때로는 진지하고 무심한 듯 챙겨주는 것이 필리핀 스타일이 아닐까 😊

9월 달은 나의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쌓는데 집중했었다면 10월 달은 덤프사이트와 푸가로의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집중하고 싶다. 필리핀에 오기 전에는 그리고 라온아띠 면접을 볼 때만 해도 나의 관심사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소외된 곳, 집에 계시는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적응하느라 바빴던 9월을 지나 10월은 좀 더 나 자신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워 피곤해도 낮잠도 안자며 필리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보냈던 9월처럼, 10월 또한 하루하루 매 순간 충실할 수 있기를..







정구인 Mutya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나는 이제 필리핀에 적응한 것 같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필리핀이 참 좋다.

초반의 고민

벌써 9월 한 달이 지나고 10월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처음 9월 초반은 나에게 있어서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다. 필리핀의 9월은 우기로 우리는 약 3주간 태풍으로 인해 아띠 하우스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공허함을 느꼈고 내가 왜 라온아띠에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는 필리핀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수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나는 한국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시간을 빈둥 빈둥 놀면서 보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까지 와서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아직 정확한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의 5개월이 걱정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헛되게 지나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수많은 생각 끝에 어찌면 지금 이 시간이 내 나이 22살에 즐길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하는데로 바쁘면 바쁘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조금해하지 않고 좀 더 충실해지기로 했다. 유심일체조라는 말처럼 정말 새롭게 마음을 먹으니 주변에 안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초반의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여유로운 필리핀의 삶이 너무 좋다!



관계

처음 필리핀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나 필리핀 마닐라 YMCA에 서 만난 인연들! 목감기로 인해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영어 로 인해 내 맘 같은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들과의 관계에 좀 소극적이었다. 팡가시안 Y에서 처음 만났던 코디네이터들과도 물론. 내 안의 고민들과 목감기 그 리고 영어로 인해서 나는 그들과의 관계의 최선을 다하지 않 았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좀 더 관계 에 있어서 천천히 생각을 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영어 에도 익숙해지고 하루하루 좋아지는 컨디션 속에 코디네이터 들과 Y의 많은 volunteer, scholar들과 소중한 인연 을 맺어가고 있다. 9월까지 나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10월이 시작되면서 내가 맺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로 인해 이제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게 느껴진다.



관계



하루는 Y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떠들고 한참 웃다가 문득 '이제 4개월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과 이렇게 매일같이 웃고 떠들고 놀지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기분이 얼마나 이상하던지.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 남은 4개월이 시간이 남아있기에 이 아이들과 앞으로 보낼 시간이 기대가 된다!



맨 처음, 라온아띠 발표가 나던 날, 내가 갈 국가가 필리핀이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도 했다. 한 번 가봤던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심으로 내가 필리핀에 온 게 감사하다. 팡가시안 YMCA가 너무 좋다. 이곳의 수 많은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Y사람들, 팡Y의 분위기, 필리핀이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인 것 같다!

목감기

필리핀에 오기 전 국내훈련 때 걸린 목감기로 인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가끔 숨도 쉬기 힘들었다. 호전되지 않는 감기로 인해 모든 것이 즐겁고 신기해야 할 초반에 그러지 못했던 게 아직도 아쉽다. ㅠ ㅠ 게다가 길에 다니는 수많은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의 매연이 나랑 맞지 않는지 한 동안 내 목은 성할 날이 없었다. 설상가상 제대로 된 약도 없는 상황,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약이 아니라 그저 민트 사탕에 의존을 하며 생강차만 주구장창 마시니 나을 기미가 없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감기와 같은 작은 병으로는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코디네이터 쯤리는 한 번 감기에 걸리면 보통 한 달 정도는 그냥 계속 감기에 걸린 상태로 지낸다고 한다. 그렇게 몇 주간 고생을 하니 면역이 생긴 건지 이제는 수많은 트라이시클과 지프니의 매연에도 내 목이 잘 버티고 있다!



음식



필리핀의 음식은 우리나라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다. 필리핀에 오기 전, 필리핀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했었지만...정말~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오히려 너무 잘 맞아서 하루하루 새로운 음식을 먹는 재미에 살아가고 있다. 강한 신맛으로 인해 손도 못 대던 시니강도 이제 맛있다. 그리고 요즘 내가 중독처럼 매일 먹는 것은 바로 Pandesal이라는 빵이다. 한 달 동안 아침으로 수도 없이 먹었는데도 질리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벌써부터 한국 돌아가면 반딧살을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끔 심란하기도 하다. 장난스럽게 팀원들이랑 한국에서 빵집을 차려 반딧살을 팔자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ㅋㅋ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필리핀의 짠 음식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우리 집은 특히나 평소에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가끔 코디네이터들이 해주는 음식이 너무 짜면 나도 모르게 표정을 찡그리곤 한다. 그래서 일부러 코디네이터들이 요리할 때 최대한 옆에서 소금을 못 넣게 하려고 옆에서 보초를 서기도 한다...!

춤



필리핀은 춤을 즐겨 하는 나라이다. 흥이 많은 문화라고 해야 할까. 처음 우리가 팡가시난에 도착해서 환영파티를 하던 날 다 같이 동영상 틀고 춤을 추는 것이 나에게 참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영파티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기도 신기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나는 춤을 즐겨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다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추자고 했을 때는 좋으면서도 뭔가 쑥스러웠다. 그런데 쑥스러움도 잠시, 각자의 스타일대로 신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그 분위기를 즐기게 되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신나게 노는 그 분위기가 참 좋았다.

가끔 '줌바클래스'에 참여해서 종종 다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내 스타일이다. 하하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춤에 대한 욕망이 있었나 보다. 푸핫... 이런 하나하나에서 한국과는 조금 다른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정영제 Lorenzo

가끔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단추를 하나 둘씩 꿰다 보면 마지막에서야 짝이 맞지 않아 단추가 잘 못 끼였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제대로 끼운지 아닌지도 모른채 마지막에 가서야 궁시렁거리며 다시 풀어버린다. 이제 막 필리핀에서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잘 끼워진지 모르겠다.

첫 에세이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어떤 파트보다 걱정스러웠다. 다른 파트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나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팀원에게 물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했지만 에세이는 다르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가장 고민도 많이 했고 한 글자 한 글자 떼기가 어려웠던 파트였다. 이번 에세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다. 사실 필리핀에서 나의 생활이 그러했다. 내가 여기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왔을 만큼의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생각을 많이 했다. 국내 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한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었다. 그래서 라온아띠에 선발되고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 하루라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라온아띠 인거지?' '도대체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뭐지?' '왜 날 뽑은 거지?'



국내훈련을 마치고 필리핀에 도착해서도 그런 생각은 나를 계속 따라 다녔다. 어딜 가나 나를 따라 다니는 것은 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 뺑긋 팀과 같이 있을 때도 새로운 현지친구들을 사귄 때에도 푸가로와



덤프사이트를 방문할 때에도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를 따라 다니는 건 꼭 나 자신이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커뮤니티와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해도 그때마저도 나 자신 때문에 집중할 수도 그렇다고 나를 빼놓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기(웬일로 필리핀에 와서는 일기를 하루도 빼바짐없이 썼다. 난 생처음이다.)의 주제도 하나같이 나에 대한 얘기뿐이다. '조용하고 싶을 때' '내 의견을 말한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 아는 나' '남의 눈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아니길' 이라는 한국에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할 어색한 주제로 일기를 쓰고 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에 대해 성찰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고등학교 도덕시간 이후로는 그런 단어조차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9월14일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나는 내 의지로 만들어진 내가 만든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흥미가 있어서 책을 읽는 건지 남들이 교양이 있게 봐주길 바라서 읽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착해서 굶은 일을 하는 건지 착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혼자가 좋아서 혼자 있는 건지 가볍게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정말 고마운 마음에 돈을 쓰는 건지 있어 보이려고 돈을 쓰는 건지 정말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는 건지 쿡한 척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건지 남의 눈에 의미가 있는 고귀해 보이는 길이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렇지만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바라는 건 정말 내가 전자의 사람이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이다.”

앞으로가 걱정이지만 노력해야겠다. 정말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내 진심이기를 기도하며 가식을 벗어 던지고 정말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바래야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 갈 때 마지막 단추를 잘 끼워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Salamat po!

